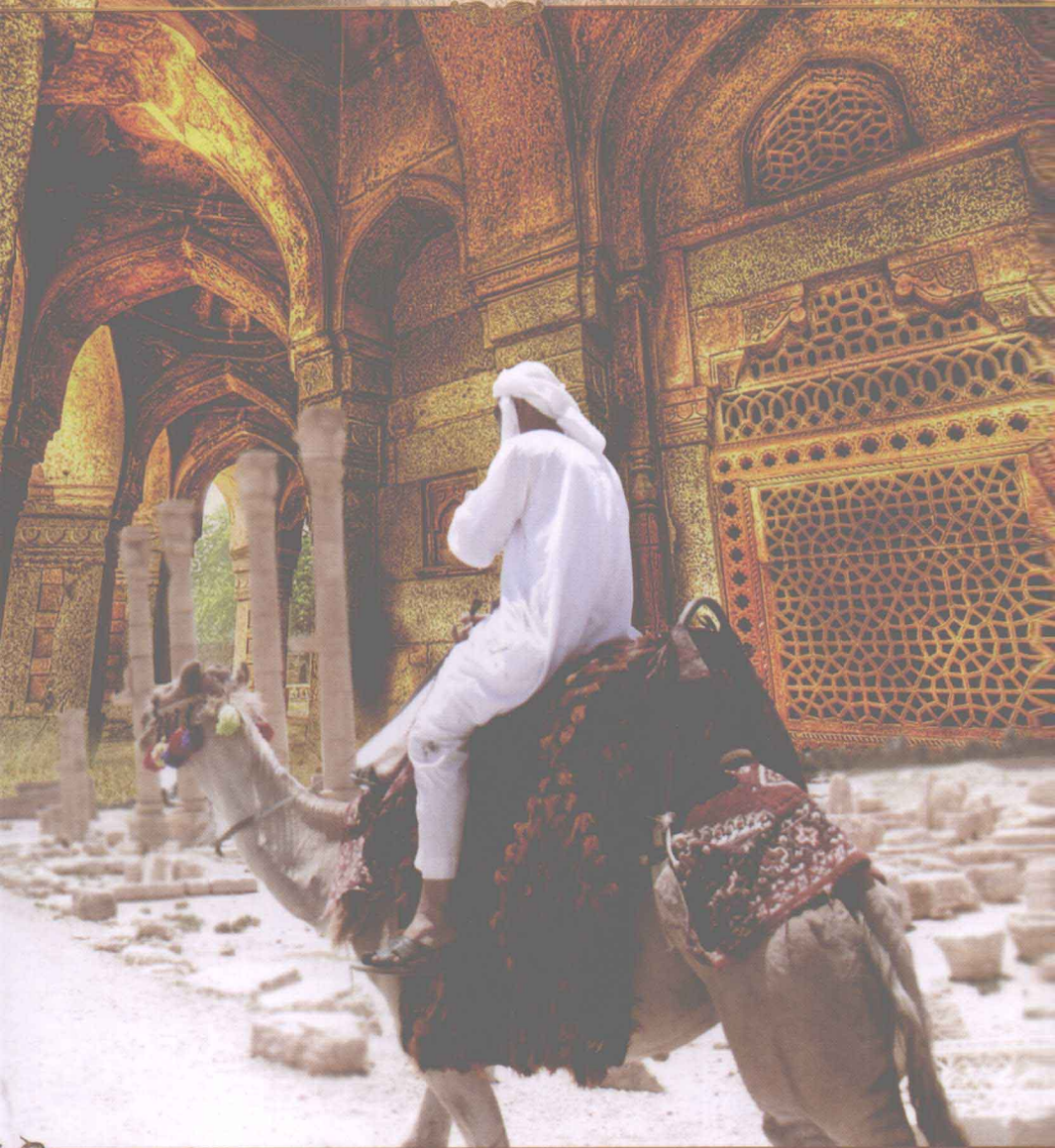


장 편 기 행



허룡석 저

신비한 아랍땅으로 가다

연변인민출판사



장편기행

신비한 아랍땅으로 가다

허룡석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박려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漫游中东: 朝鲜文 / 许龙锡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99-2

I. 漫… II. 许… III. 纪实文学-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76037号

漫游中东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0 字数: 27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99-2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글

일사천리로 활보하며 고속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만리장성 밖의 세계적발전템포와는 달리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서부터 나라대문을 닫아걸고 있지도 않는 자본주의복벽을 방지하고 수정주의 백일몽을 박산낸다는 잔혹한 계급투쟁학설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가지 정치운동을 벌려 “갈수록 많아지는 계급의 적”들을 잡아내는데 열광하던 중국이 모택동주석의 서거와 더불어 나라를 붕괴의 변두리로 몰아넣은 10년 “문화대혁명”을 비롯한 무시무시하고 피비린 계급투쟁을 결속짓게 되었다.

혁명의 길에 들어서서 한평생 자기를 잊고 혁명하며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했으나 역사적으로 세번이나 억울하게 자기의 당과 수령에 의해 천길나락으로 곤두박질당했던 “오또기” 등소평이 고마운 전우들과 역사를 검증하는 인민들의 부름을 받들고 또다시 정계에 등단하였다. 등소평의 등단으로 하여 수십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나라의 동서남북 대문이 녹딱지를 떼며 서서히 열리게 되었다. 하여 장기간의 계급투쟁에 된서리를 맞고 밀도 끝도 없는 가난에 주눅이 들었던 중국사람들앞에는 신기하고 경이로운 글로벌시대가 펼쳐졌다. 달나라와 같이 아득하게만 멀어보이던 넓다란 세상은 우리와 껍 가



까와져 이웃동네와 같은 하나의 자그마한 지구촌으로 다가왔다. 그 덕에 조상때부터 나귀나 수레만 타고 다니던 수많은 백성들도 버젓이 비행기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기계수레”를 타고 제 집 나들듯 외국나들이를 하며 세상사에 어섯눈을 뜨게 되었다. 근 30년간이나 우월한 사회주의 덕분에 “구사회에선 보기조차 힘들었던” 내가 먹던 강낭떡이 인민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생명떡이며 내가 사는 나라만이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행복의 낙원이라고 여기던 가소로운 우물안의 개구리신세를 모면하게 되었다. 실로 개혁개방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상전벽해, 천지개벽의 변화였다.

그런 와중에도 중국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중동 지역의 아랍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 희미한 베일에 가려져있는 신비의 땅이기만 했다. 인류가 이 땅우에서 공생공존하고 상부상조하자면 다른 민족과의 접촉에서 흔히 크고작은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인간사회의 속성때문에 문화적포용력, 적응성, 융화작용으로 인해 상호간에 이해가 넓어지고 그 어떤 형태로든 국민생활에 상대방의 숨결과 문화가 스며들기 마련이다. 그것은 종교, 철학, 룰리, 도덕 등 분야뿐만아니라 문학이나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경제적 물질적 면에서뿐만아니라 가요나 오락 등 일상의 취미생활에 속하는것에서도 상호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중동의 아랍나라들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있다. 지난날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 날도 마찬가지이다. 그 원인은 역사적으로 서로의 종교, 문화, 사회, 전통, 풍속 등 모든 면이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서로가 접촉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일수도 있고 피차간에 자기의 문화전통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과 자부심때문이라



할수도 있으며 우리 나라가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해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구라파나 선진국이 지향이었기에 아직 여러 면으로 뒤떨어진 중동의 아랍나라들의 경제나 문화에 대하여 흥미나 관심을 둘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때문일수도 있는것이다. 아랍나라들 또한 여직껏 끊임 없는 내부적투쟁으로 국제적비난이 그치지 않고 발전방향실책으로 장기간 가난하고 랍후했던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던것처럼 별 흥미나 관심을 두지 않았기때문이지 아니라고 할수도 없을것이다. 하기에 서로 별 래왕이 없었던 아랍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란 그저 신문이나 텔레비존에서 보아오던 전쟁과 테로, 혼란과 랍후 등에 관한 수박겉 핥기 식 료해가 고작일것이다. 물론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였다.

2007년 6월말—7월초에 나는 뜻밖이고도 행운스럽게 중국작가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신비한 아랍땅을 밟아보게 되였다.(연변작가협회가 비록 지구급이긴 하나 력사적원인으로 성에 귀속되지 않고 직접 중앙에 귀속되어있기에 이런 혜택을 보게 된것 같다.) 짧디짧은 10일간의 방문일정을 마치고 중동 지구에서 돌아온후에도 아랍의 고전적문학작품 《천하루밤이야기》와도 같은 아랍나라들의 신비하고 이색적인 정치경제, 종교민속, 력사고적, 풍토인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뜻깊은 감회들은 별나라를 돌아보고 온듯 그 어느 나라 방문때보다도 인상이 깊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오래도록 감도는 메아리의 은은한 여운마냥, 넓은 호수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은빛파문마냥 찰랑이며 내 가슴에서 오래동안 사라질줄 몰랐다. 하여 작가문인들의 문학모임이 있을 때면 잊혀지지 않는 아랍땅의 신비한 문화풍토들을 가담가담 이야기하였더니 모두들 전에는 종래로 들어보지 못했던 재미나고 신기한 아랍의



인정세대라며 그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 여태껏 미국, 일본, 한국이나 구라파, 대양주, 동남아에 다녀와서 쓴 문인들의 기행이나 에세이는 많았어도 별로 다녀올 기회가 없는 멀고 외진 아랍땅에 대하여 쓴 글은 거의 없었다는 일가견이였다. 글을 떠날수 없는 문학인의 사고방식에 아직 입문되지 않아서였던지 원래는 아랍방문을 두고 글 쓸 생각은 하지 않은터였으나 여러 문인들의 충고를 받고는 마음이 동하게 되었다. 하여 20여년간 놓았던 생소한 문학창작의 필을 다시 들고 방문과정의 회역을 더듬으며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0기에 걸쳐 《연변문학》잡지에 “중동방문기”를 연재하였다. 워낙 글 쓸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데다 사업여가에 달마다 만여자씩 이어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여 시간에 쫓겨 “말죽 먹이기”가 일쑤였다. 연재가 끝나 돌이켜보니 총망히 내놓은 글들은 마치 서투르고 게으른 목수가 잘 다듬지 않고 내놓은 가구마냥 웅기종기 흠집이 많았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와 감수들을 제대로 엮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알알하게 느꼈다. 하여 이 책을 묶게 되는 기회에 나는 이미 발표했던 글들을 다시 훑어보면서 연재에 미처 올리지 못했던 새롭게 떠오른 내용들을 일부 가침하였다. 그리고 다년간 신문, 방송 사업을 하면서 책과 신문, 잡지에서 보아두었던 자료들을 되새기면서 아랍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종교와 연계되는 부분들을 보충, 보완하였으며 방문한 나라들의 이색적인 크고작은 지역적이야기들을 아랍전역과 연계시키고 아랍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와, 세상과 연계시킬수 있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징검다리를 놓는 식으로 독자들이 “물방울에서 태양의 빛을 보게” 하려는 소박한 시도를 하였으나 “뱀을 보기 좋게

그린다는것이 도리어 다리까지 그려넣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아랍의 10분의 1정도도 안되는 고작 두개 나라를 방문하고 한개 나라를 스쳐지나면서 전반 아랍세계를 거든다는것은 어쩔 고양이와 소대가리를 어르듯 엉뚱하고 주제넘는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되도록 보다 많은 아랍의 세태들을 독자들앞에 펼쳐 보이려는것이 나의 소박한 의도였음을 이해하여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딱딱하고 메마른 주입식의 설교가 아니라 독자들이 나와 함께 산책하며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아랍나라를 방문하고 친히 겪은듯한 감수를 주려 한 것도 나의 시도였다.

런재되었던 글을 다시 다듬고 보충하느라 했으나 아랍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지식에 대한 미숙, 문학적수양 차이, 언어문자의 빈약 등으로 아직 많은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독자들의 관용을 바란다. 다만 이 책이 “말타고 꽃구경을 하는 식”으로나마 독자들이 신비한 아랍땅과 이색적인 아랍민족을 료해하고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생각하겠다

작자

2008년 10월 18일

비
리
방



차 례

서장 / 1
세계 초호화호텔앞에서 / 6
두바이— 암만공항에서 / 28
요르단작가들과 한자리에 앉아 / 40
정보산과 고로마극장 / 53
세계 8대기적의 하나— 페트라옛성 / 67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 / 88
작가협회주석의 코미디연설 / 105
두터운 감정, 알알한 마음 / 132
아랍의 독특한 음식문화 / 142
아랍식사유와 “대범한” 일본새 / 165
국제적쟁의가 많은 콜란고지에서 / 191
그들은 왜 “조국”에 돌아오려 하지 않을까 / 208
성스럽고도 고달픈 외교관사업 / 225
아랍세계를 뒤흔든 “중국주간”방송 / 247
이슬람교와 사회문명도덕 / 267
아랍어와 아랍문학의 부흥 / 289
허룡석략력 / 307

서 장

아시아, 아프리카, 구라파 지역이 서로 다정하게 포옹하고 키스하는 곳에 신비하고 심술궂은 거울진 사나이와도 같은 땅덩어리가 한조각 끼여있으니 세상사람들은 이곳을 일컬어 중동이라 부른다.

중동이란 예로부터 세계문명을 뿜내며 남을 우락부락 휘여잡던 코대 높은 구라파사람들이 지어낸 지명이다. 당년에 구라파사람들은 동아시아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한 제일 동쪽끝에 거대한 룩지항공모함마냥 림름하게 자리를 틀고앉은 중국이란 땅덩어리를 일컬어 원동이라 불렀었다. 그들은 자기네 구라파와 원동이라 이름 지은 중국 사이에 성부지 명부지로 따리를 틀고있는 이 엉성하고 거울진 땅덩어리를 명분에 맞게 중동이라 불렀다. 하여 세상사람들은 당시 세계문명을 주도해나가던 구라파사람들을 본따 습관적으로 이곳을 중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동에 자리잡고있는 아랍이란 지역은 넓고도 변화 많은 신비의 땅이다. 서쪽의 대서양으로부터 동쪽의 아랍해에 이르기까지 북쪽의 지중해로부터 남쪽의 아프리카 중부에 이르기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애굽, 이스라엘, 요르단, 수리아, 이란,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추장국련방 등 22개 나라가 개

서
장



구리알마냥 조롱조롱 엉켜있다. 면적은 1420만km²로서 중국땅의 약 1.5배 남짓하다. 인구는 3억으로서 중국인구의 4분의 1도 안된다. 중동지역은 세계적으로 퍼그나 생소하고 신비로운 땅으로서 세인들의 경아한 눈길을 끌고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지중해 해안이 있으며 아랍세계의 생명의 강-닐강이 있다. 달나라경색을 방불케 하는 망망한 고비사막이 있는가 하면 삶의 희망을 안겨주는 늘 푸른 오아시스도 있다. 또한 천태만상의 암석동굴이 사처에 널려있으며 헤아릴수없이 많은 옛성터의 유적과 고풍스러운 예술적건축물들이 즐비하다.

이 땅덩어리는 일찍 세계인류문명의 활무대로서 다른 대륙의 인류들이 나무를 비벼 불씨를 얻고 수렵으로 생계를 이어갈 때 벌써 무수한 인류문명의 기적을 창조하였었다. 중동지역의 애굽은 인류력사중 가장 유구한 문명고국으로 락인되어 있다. 애굽의 고대문명이 서산에 지는 해마냥 저물어갈 때 중국의 첫 황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보좌에 오르며 중국의 고대력사에 빛나는 일필을 그었다. 고대 이스라엘사람들이 머시를 숭배하며 노예적신분에서 벗어나려 하던 몇백년 전에 애굽은 벌써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발달한 강대국이였다. 이탈리아반도의 부락민들이 아직도 타이버하 량안에서 풀로 초막을 짓고 수렵으로 살아갈 때 애굽은 이미 번영창성한 나라였다. 2,000여년전에 희랍의 로마인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 애굽에는 희랍현대인들이 갖고있는 현대모양의 유적과 폐허가 널려있었다. 고대애굽은 인류력사발전사에서 마멸할수 없는 기여를 하였으며 그 중요한 의의를 한두마디로 형용할수 없다. 력사적으로 내노라 으시대며 바람결마냥 오고가던 여러 대제국들이 발달한 중동이란 이곳에서 서로 뒤질세라 자기의 어지러운 침략의 말발굽소리를 남기며 승리의 기발을 쳐들었



다가는 또 이곳에서 하나하나 먹에 칼을 맞고 쓰러졌다. 종종
별별, 다다소소의 종교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이곳에서
아귀다툼을 하고 생사판가리싸움을 벌렸었다. 끊임없는 피비린
싸움을 벌리며 여러 대제국들이 창조한 인류문명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공동으로 인류문명의 년륜을 새록새
록 새겨왔으며 중동지역의 역사적재부를 창조해왔다. 이곳에는
아직도 발굴해내지 못한 역사적문화유산이 무진장하다.

세상사람들은 중동지역을 만화경이라 일컫는다. 이곳은 지
리적변화가 다단하고 인종이 혼잡하고 건축풍격이 각이하다.
종교성지인 이곳에는 네속에 나가 있고 나속에 네가 있으며
너와 나가 서로 얼기설기 흐트러진 삼검불마냥 뒤엉켜져 실마
리를 찾기 어렵다. 서로 뒤질세라 강대함과 문명함을 뽐내던
여러 제국들이 횡행하던 곳이라 애굽인, 페르샤인, 히랍인, 로
마인, 유태인, 토이기인, 아랍인들이 이곳에서 서로 한치의 땅
이라도 다투며 광풍폭우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자기들의 역
새풀 같은 존재를 과시했었다. 중동지역의 많은 곳에서 제멋대
로 나당구는 돌덩이 하나를 주어들어도 거기에는 수천수만년
의 비장한 역사적이야기가 담겨져있다고 한다. 서양사람들이
세계의 인류문명을 주도해나가기전에는 사실상 이곳이 세계
인류문명의 중심지였다. 이곳에는 인류건축사의 기적으로 불리
우는 미스터리한 피라미드가 있으며 조각예술이 뛰어나고 건
축술이 출중하여 세상에 둘도 없다는 4000여년의 유구한 력
사를 가진 신비한 칼라크신묘가 자리잡고있다. 이곳에는 세계
8대기적의 하나로 불리우는 페트라엿성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
장 큰 사하라사막이 아득하게 펼쳐져있다. 또한 세계 4대문명
고국에 속하는 바빌론과 애굽이 이곳에 자리잡고있으며 세계
10대고대문명에 속하는 시버래문명, 야술문명 등 6대문명이



이곳에서 찬란한 빛을 뿌린다.

비단의 길도 이곳을 통해 중국과 구라파로 이어졌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문화와 물자교류의 뉴대와 교량으로 되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적중동은 이미 지난날의 빛나는 역사적이고대문명이 퇴화되고 색바래져 더는 인류문명의 중심지였던 흔적과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 지구적인 비약적발전과 변혁속에서도 어찌면 수천년간 단단히 다져져 부서지지 않고 색바래지 않는 화강석마냥 보수적전통을 가장 많이 보류하고있으며 세상과는 껍 동떨어진 락후의 땅으로 되여있었다. 이곳의 청진사와 전통적바자(집시)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의연히 《천하루밤이야기》에 나오는 묘사마냥 이색적이고 신비로운 색채를 띠고있다. 중동지역에 가면 현대적문명의 향수보다는 마치 유구한 역사의 년륜을 아로새긴 거대한 로천력사박물관에 들어선듯한 야릇한 기분이며 세계고대사사이를 누비며 인류의 가장 보귀한 역사발전사를 감수받는듯하다.

달나라에서 지구를 굽어보면 가히 식별할수 있는 영상이 애급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이라 한다. 하지만 세계상의 두 문명고국은 역사적인계로 장기간 서로 래왕이 없었으며 세상의 머나먼 곳에 자기와 어깨를 견줄수 있는 또 다른 문명고국이 있는줄 서로 모르고있었다. 가장 일찍 알았다는것이 1900년전에 한조의 사신 감영이라는 사람이 간난신고를 거쳐 홍해부근에 한번 다녀온것뿐이다. 그가 다녀온후에도 길이 너무 멀고 고생스러워 거의 래왕이 없다싶이 되었다. 말과 나귀를 타고 다니던 때라 한번 다녀오자면 몇달씩 걸려야 하기에 쉽지 않은 고역이었던것이였다. 그후 비록 가까운 지역에 비단의 길이 열리고 정화가 서양에 여러차례 다녀오기는 했어도 아



랍지역과는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다. 하기에 두 문명고국은 서로 교류하며 배우고 협력하여 보다 훌륭한 문명을 창조하여 인류문명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수 있는 보귀한 역사적기회를 놓쳐버렸다.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지금도 서로간에 정치,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많고많은 미스터리가 남아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나라상층간의 교류가 전보다는 썩 빈번해졌다. 하지만 민간인들간의 래왕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아랍땅은 아직도 중국인에게는 알쏭달쏭 베일에 가려져있는 생소하고 신비스러운 땅이다.

얼마전에 나는 행운스럽게도 중국작가협회에서 중동지역 일부 아랍나라 작가협회의 초청에 의해 조직된 중국작가대표단 부단장의 신분으로 (단장은 내몽골자치구작가협회 주석 아얼타이였음) 신비한 베일에 가려져있는 중동지역의 요르단, 수리아 등 아랍나라를 방문하면서 아랍세계의 한 귀퉁이나마 엿볼수.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람은 문화의 존재물임에 틀림없다. 어떠한 지역, 어떠한 사람이든 모두 일정한 문화권에서 살아가고있는것이다. 부동한 지역의 부동한 사람들은 부동한 문화를 창조하며 부동한 문화는 부동한 사람을 육성한다. 이를테면 같은 중국인이라 해도 중국과 홍콩, 대만에서 사는 사람의 사유와 관념이 틀리고 같은 흑인이라 해도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의 사유방식과 생활방식이 다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어떠한 민족이나 모두 생존하려 하고 발전하려 하기에 모두 자기들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있다. 다만 어떻게 생존해나가며 여하히 발전하느냐 하는데는 민족마다 서로 다른 부동한 방식이 있기에 부동한 문화가 창조되는것이다. 중동지역의 아랍인들도 열악한 자연환경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따로 가지고있었다.



세계 초호화호텔앞에서

2007년 6월 27일 오후 5시 30분, 중국작가대표단 일행 5명은 중국국제항공공사 보잉기에 올라 바야흐로 사람들을 놀래우며 세계적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아랍추장국련방(阿联酋)의 국제공항 두바이(迪拜)로 향했다.

두바이는 워낙 아라비안만의 메마른 모래땅우의 한적한 자그마한 어촌마을이었다. 마치 우리 나라의 현대화도시-심수가 30년전의 자그마한 어촌마을로부터 개혁개방의 동풍을 타고 세계적기적을 일궈낸듯이 현재의 두바이도 상전벽해의 현장, 사막의 기적으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날마다 진주잡이를 생업으로 하던 어촌마을이, 석유가 나기 시작한 지난세기 60년대말까지 걸프지역 무역중계지 정도에 불과했던 두바이가 20여년만에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세계 굴지의 물류,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두바이국제공항은 세계 5대공항의 하나로서 구라파, 아프리카,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동의 허브공항으로 급부상하고있다. 두바이국제공항 려객수는 해마다 평균 15%씩 늘어나 세계 이름난 공항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현재 두바이국제공항은 해마다 3000만명의 려객들을 수송하고있으며 7000만 려객들이 이곳



을 거쳐 세계각지로 간다. 두바이정부에서는 330억달러를 투자하여 2012년안으로 현재 공항보다 10배나 더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는 두바이 인구당 2만 4000달러씩 투자하는 셈으로 된다. 여직껏 한가지 건설항목에 인구당 이처럼 엄청난 투자를 한 전례는 세계에 없었다.

두바이는 또한 세계에 이름난 해변도시이기도 하다. 중동 지역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거개 두바이를 거쳐 여러 아랍나라로 간다. 우리 작가대표단도 두바이를 거쳐 요르단으로 가게 되었다. 북경으로 오가는 아랍나라 항공공사의 객기도 수두룩하지만 우리 대표단이 중국 객기에 탑승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공무로 출국방문하는 국가대표단은 반드시 국내 항공공사의 객기를 타야지 외국 항공공사의 객기에 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공사의 비행기표값이 외국항공공사 비행기표값보다 엄청 비싸지만 “우물안의 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국내 항공공사의 리익을 챙겨주다보니 이 면에서는 시장경제규률을 어기고 아직도 “계획경제” 모식을 실행하고있는 모양이었다.

비행기에 오를 때는 아랍으로 가는 비행기이니 당연히 아랍인들과 기타 외국인들이 다수일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처음부터 빗나갔다. 우리가 탄 보잉기의 3백여명 려객들 거개가 우리와 같은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중국인들이었다. 소박한 옷차림에 별로 화사한 화장도 하지 않은 나젊은 녀인들도 3분의 1은 점하고있었다. 알고보니 이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중동지역 여러 나라들에 가 장사를 하거나 로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중에는 석유가 많이 나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여러 나라 석유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 가 석유를 채굴 한다는 중국석유회사의 노동자들이 다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차로 귀국했다가 시간 맞춰 일터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친구나 친척의 소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처음 중동행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개혁개방이후 우리 조선족들이 경제적으로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 나라에 나가 돈벌이를 하는줄은 알고있어도 중동지역에 나가 장사하고 일하는 중국사람들이 이처럼 많을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우리 연변의 한족들이 조선족에 비해 외국에 나가 돈벌이를 할 기회가 훨씬 적은줄로 알고있었는데 내지의 한족들은 그게 아니었다. 게다가 놀라운것은 거울지고 터프한 북방사람보다도 왜소하고 령리한 남방사람들이 다수라는 점이였다. 대체로 절강, 강소, 안휘, 광둥 일대의 약삭빠른 사람들이였다. 아마도 나라가 창립되어서부터 줄곧 수십년간 실시해오던 계획경제시기에 정책적 지리적 원인으로 중공업의 혜택을 적게 받은 남방사람들이 철밥통관념에 많이 젖어있는 북방사람들보다 시장경제의식이 훨씬 앞선것 같았다. 마치 백지에 그림그리기 쉽듯 깨끗한 머리에 새로운 관념이 쉽게 접수되는것 같았다. 집채같은 려객기안은 빈자리 하나 없이 중국사람들로 꽉 차있었으며 알아듣기 힘든 서로 다른 저들 남방의 고향사투리로 떠들썩하는 비빔밥 같은 중국말소리가 얼얼하게 귀속을 파고들었다. 감장얼굴, 노랑머리, 파란 눈들도 종종 보였지만 그것은 쌀의 뉘였다. 그탓이었던지 출국한다는 느낌보다도 국내향로의 어느 려객기에 잘못 오르지 않았나 하는 착각까지 가지게 되였다.

둔중한 려객기가 동음을 울리며 가볍게 리륙하여 조국의 하늘을 날 때는 기복을 이룬 푸르른 산과 주단같이 펼쳐진 곡